

Exploring Spiritual Concepts for Spirituality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

중등학교에서 영성 교육을 위한 영성 개념 탐색

Ok Han Yoon¹

윤옥한¹

¹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South Korea,
okaiyoon@kookmin.ac.kr

Abstract: While research on spiritual education is increasing, spirituality is still recognized to be an abstract, difficult, and ambiguous concep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spirituality clearly by considering the concept and exploring the direction of spiritual education in secondary education. Spirituality can be defined according to vertical and horizontal dimensions. First, the vertical dimension implies metaphysical and religious meaning concerning a relationship with a higher and transcendental being in a specific individual context that goes beyond the existing understanding of individualistic, inner-centered, and afterlife-centered spirituality. Second, the horizontal dimension includes existential meaning in social and environmental relationships, meaning relationships with self, others, and nature. Thus, spirituality is “expansion of consciousness about transcendent existence.” This emphasizes spirituality linked to temporal life, exemplifying the need to fulfil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possibility of practicing it. Moreover, it serves as a basis for escaping from the narrow perception of interpreting spirituality only from an excessively mystical or rationalistic perspective in the past. Spiritual education in schools needs to teach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harmoniously.

Keywords: Spirituality, Spiritual Education, Spiritual Intelligence, Spirituality and Religion, Spiritual Education

요약: 영성 교육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영성 개념은 추상적이고 어렵고, 모호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성의 개념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영성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교육에서 영성 교육 방향을 탐색 하는 데 있다. 영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첫째, 수직적 차원이란 상위 존재, 초월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형이상학적,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성을 각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맺는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개인주의적, 내면 중심적, 내세 중심적인 영성 이해를 넘어선다. 둘째, 수평적 차원이란 사회적, 환경적 관계에서 실존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기, 다른 사람, 자연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때의 영성은 ‘초월적 존재에 관한 의식의 확장’이다. 이것은 현세적 삶과 연계된 영성을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수행의 필요성과 그 실천 가능성을 예시하고, 과거의 지나친 신비주의적 입장이나 합리주의적 시각에서만 영성을 해석하려는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근거가 된다. 학교 교육에서는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 두

Received: December 11, 2022; 1st Review Result: January 25, 2023; 2nd Review Result: February 23, 2023
Accepted: March 31, 2023

측면을 조화롭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영성, 영성 교육, 영성 지능, 영성과 종교, 영성 교육

1. 서론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되었다. 그러나 물질만능주의, 가정해체, 인간관계의 소외현상 등으로 인한 삶의 위기,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삶의 위협과 불안, 스트레스에 직면한 현대인들에게 영성(spirituality) 교육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한 삶을 영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1]. 영성이란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 본성으로 회복과 치유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다[2]. 인간은 영성을 통하여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초월시킬 수 있으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삶의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영적인 질문들에 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 세계미래학회에서는 2050년부터 영성이 화두가 될 것이며, 영성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래사회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한 심리적 구인의 하나인 영성이 핵심역량으로 부각 될 것으로 보았다[3][4].

올바른 영성 교육을 위해서는 영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개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개념은 간접적으로 추론되는 추상성 때문에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거나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에 관한 여러 정의가 도출되기도 하고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이 지닌 다양한 함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구하면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념을 명료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5]. 인간을 다차원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영성 교육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영성 연구내용을 전공영역별로 보면 기독교 교육 분야, 심리 상담학 분야, 간호학 분야, 사회복지학 분야 등에서 연구되고 있다[1][3]. 그러나 정규 학교 교육에서 영성에 관한 연구는 영적 개념의 추상성, 심리적 영역과 구분의 모호성, 종교적 개념과의 혼용, 과학적 회의론 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연구되지 않고 있다. 영성과 종교의 개념은 자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됐으나, 사실상 똑같은 개념은 아니다[6]. 특히 영성은 ‘종교’ 또는 ‘종교성’과 연관되지만, 영성과 종교의 관계는 문화권마다 다르다. 한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영성과 종교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일본인과 유럽계 미국인은 영성과 종교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인간이 종교 활동을 통하여 초월적 존재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영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영성은 특정 종교에 관계 없이 나와 상대방, 그리고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실정에 맞는 영성 교육을 위해서는 영성에 관한 명확한 개념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2].

이 연구의 목적은 영성의 개념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영성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교육에서 영성 교육 방향을 탐색 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은 첫째, 문헌에 나타난 영성 개념을 정리하고, 둘째, 영성 개념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영성 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영성 개념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술 자료(국내: KCI, DBPIA, RISS, KISS, 국외: Education Resource, Science Direct, ERIC 등)를 활용하여 영성 관련 논문 70편을 수집하였다. 이 중 영성 개념을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논문은 52편이었다. 논문 중 영성 개념, 영성 지능, 영성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영성 개념을 도출한 논문과 저서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에 사용된 논문과 저서 수

[Table 1] Number of Papers and Books Used in the Study

| 구분 | 검색 수 | 사용 수 |
|----|------|---------|
| 논문 | 70 | 52(74%) |
| 저서 | 15 | 11(73%) |

영성 개념에 관한 연구 방법은 Walker & Avant(1995)가 제시한 개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7]. 개념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개념분석, 개념합성, 개념 도출이 있다. 개념분석은 기존의 개념들이 어느 정도 개발된 단계에서 필요하다. 개념합성과 개념 도출은 현상을 나타내는 적절한 개념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적절하다. 개념 분석을 위해서는 Walker & Avant(1995)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7][8].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개념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개념의 사용범위를 영성, 영성 교육, 영성 지능, 영성 속성을 확인한 후 영성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개념분석 방법은 첫째, 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하고, 둘째, 개념의 주요 속성을 확인한 후, 셋째, 속성에 기초한 모델 사례를 구성하고, 넷째, 속성의 선행조건과 결과를 확인 후, 다섯째, 속성의 경험적 준거를 확인한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와 둘째 단계의 방법을 사용한다. 나머지 셋째와 넷째, 다섯째 단계는 후속연구에서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3. 문헌에 나타난 영성의 개념

영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속성을 규명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개념을 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영성의 복잡하고 다양한 본질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정의는 없다. 특히 영성을 정규학교 차원에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영성 개념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탐구가 요구된다[9].

3.1 문헌에 나타난 영성 개념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 지라”. 여기서 생령이란 의미는 영(spirit)이란 의미이다. 이러한 인간의 영은 신체에 활력을 일으키는 생명의 숨결과 같은 것으로 인간의 삶에 통합적인 힘으로 작용하여 초월자와 연결되게 하는 요소가 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본성으로 영(spirit)을 갖고 있으며 이 영의 외적 발현이 영성이다. 불교는 구도(求道)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영성은 구도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유교에서 영의 개념은 조상들의 혼백, ‘하늘’과 연계하여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다. ‘영성’의 의미란 교육을 통해 조상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에 있다[6].

상담학 사전에서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높은 본질적인 부분이며 자기 초월을 향하는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제이다[10]. 영성의 개념을 학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이다. 그 배경에는 첫째, 이성과 과학을 중요시하는 합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포스트모던 정신과, 둘째,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개념 재규정에서 영성(靈性)을 추가하면서부터이다. 1999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개념을 재정립하였다. 건강한 상태는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및 영적 안정 상태’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새롭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영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1][6].

영성은 20세기의 문화적 발달을 거치면서 그 중요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신성, 초자연적 존재, 자연, 우주 혹은 인간 존재를 뛰어넘는 다른 신성한 영역 간에 초월적인 실존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종교라는 말은 점차 영성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문화적 풍토가 조성되었다. 영성은 인간의 내적인 자원의 총체로서, 나와 상대방 그리고 초월자의 존재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신체, 정신, 영혼을 통합하는 에너지이며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주관하게 하고, 당면한 현실을 초월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등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영성은 심리·사회적 건강을 포함한 개인의 전인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차원 높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10]. 이러한 영성의 개념은 학문적 배경과 연구자의 지향성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영성의 개념

[Table 2] The Concept of Spirituality

| 학자 | 영성 개념 |
|----------------------------|---|
| Ellison (1983) | 영성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동기 유발하는 힘으로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며 나와 타인, 자연과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
| Griffiths, (1984) | 인간의 삶과, 삶은 넘어선 초월자와 관계에서 인간초월의 지점이며, 다수와 하나가 만나고 접촉하는 지점으로 영성을 정의했다. |
| Burhardt (1989) | 초월자인 신과 나,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희망과 의미이며 사랑과 같은 삶의 최고의 가치를 달성하는 능력이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을 통합하는 힘이라 정의하였다. |
| Wolf (1996) |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육체에 생기를 주며 지성, 상상력, 감정, 요구, 의지를 포함하는 능력 중의 하나로 정의하였다. |
| Helminiak, (1996) | 자신을 초월하는 것으로 삶의 역동성을 추구하며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재라고 정의하였다. |
| Groome, (1998) | 인간의 머리, 가슴, 손을 쓰는 통전적인 일이며, 온전한 삶의 방식으로 영성을 정의하였다. |
| Paloutzian과 Ellison (1982) | 영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수직적 차원으로 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종교적 영성이고, 둘째, 수평적 차원으로 나와 다른 것들과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실존적 영성이다. |
| Canda |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측면을 포괄한다. 인간 이해와 설명의 한계를 |

| | |
|------------|--|
| (1988) | 넘어선 현실의 차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정의한다. |
| 오복자 (1997) | 영성이란 대상자의 특정 종교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행위들을 합한 이상의 것이다. |

출처: 김춘경 외 4인(2016), 김용환, 최금주, 김승돈(2009)의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1][10]

문헌에 나타나 영성개념을 정리하면 첫째, 영성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영성은 초월자와 만남이 있는 것이다. 셋째, 영성은 두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수직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수평적 차원이다, 넷째, 영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이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다. 다섯째, 영성은 특정 종교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행위들의 합 이상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영성을 조작적으로 정리하면 영성은 특정 종교적인 행위나 신념이 아니라 초월자(초자연, 신)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함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현실의 삶에 충실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영성은 특정 종교적 신념은 아니지만 초월자(초자연, 신)와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의 충실한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영성이 깊다는 의미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초자연과 연결지어 삶을 생각하며, 현실의 삶(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에서도 충실히 사는 사람의 의미한다.

3.2 문헌에 나타난 영성 지능

Gardner(2000)는 영성 지능을 다섯 가지 핵심 능력으로서 정의하였다. 첫째, 신성한 존재 또는 자신에 대한 초월적 인식 능력, 둘째, 영적 의식 상태로의 진입 능력, 셋째, 일상의 경험을 신성화하는 능력, 넷째, 문제 해결에 영성을 활용하는 능력, 다섯째, 미덕 행동(예 : 용서)에 관여하는 능력이다[4]. Zohar와 Marshall(2000)은 영성 지능이란, 의미와 가치의 이슈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의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11]. 이들은 영성 지능을 “나는 왜 태어났는가?”, “삶의 가치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재구조화하는 지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성 지능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를 정리하면 [표 3][표 4]와 같다.

[표 3] 영성 지능의 개념

[Table 3] The Concept of Spiritual Intelligence

| 학자 | 영성 개념 |
|------------------------|--|
| Khavari (2000) | 영성 지능은 한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
| Zohar와 Marshall (2000) | 영성 지능이란 삶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의 실존에 접근하는 것, 자기에 관한 심층적 지능이라고 하였다. |
| 박숙희와 이충범 (2018) | 영성 지능을 전체적인 완전한 지능 또는 초인지 지능으로 보았다. 개인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의 전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이며 개인의 지성과 감성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종합적 능력이다. |
| 문용린 (1996) | Gardner는 뇌의 일정한 부분과 관련된 것을 입증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중 지능 중 9번째 지능의 후보군에 위치하며, 8½지능이라고 하였다. 실존지능이라고도 불리는 영성 지능은 우주적인 또는 실존적인 문제에 관한 관심, 존재 상태에 도달하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였다. |
| 김용구, 김희정 (2021). | 영성 지능을 실존에 대한 성찰로 인간의 실존적인 삶에 관심을 두고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능력으로, 지성과 감성을 도와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는 지능으로 정의하였다. |

| | |
|-----------------------|--|
| Amram & Dryer, (2008) | 영성 지능은 영적 자원을 끌어내는 능력이다. 인간의 가장 상위지능이다. |
| Vaughan (2002) | 영성 지능은 삶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화로운 지능이다. 이러한 영성 지능은 개발될 수 있다. 영성 지능의 발달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 김재석, (2019) |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지능이 영성 지능이다. 인간은 영성지능의 개발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

출처: 김용구, 김희정(2021)의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3].

영성지능을 정리하면 첫째, 영성지능이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능이다. 둘째, 초월자(초자연, 신)와 연결해 보려는 지능이 포함되며, 셋째, 인간의 실존적인 삶과도 관계되어 있다. 넷째, 인간만이 지니는 지능이다. 종합하면 영성지능이란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능으로 초월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만이 지닌 지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 영성 지능 구성 요인

[Table 4] Components of Spiritual Intelligence

| 학자 | 영성 개념 |
|-------------------|--|
| Howden (1992) | 영성 지능은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 상호연결성, 내적 자원 |
| MacDonald (1999) | 초월적 경험, 초자연, 믿음과 목적의식, 실존적 의미, 종교성 |
| Hatch(1998) | 수용성, 개인적 적용, 겸손, 통찰, 실존, 영적 조망 |
| 오복자와 강경아(2001) | 삶의 의미와 목적, 관계성, 사랑과 초월적 에너지, 영적 인식 |
| 이경렬(2004) | 초월성, 삶의 의미, 연결성, 자비심, 내적 자원, 자각 |
| 김진호(2015) | 초월 능력, 의미 능력, 관계 능력, 내적 능력, 의식 능력, 실존 능력 |
| 글로벌 SQ 연구소 (2015) | 영성 지능은 일반지능(IQ)과 정서지능(EQ)의 바탕이 되며 다른 지능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작용하는 궁극적인 지능으로 실존지능, 초월지능, 의미지능, 관계지능, 내면 지능, 의식지능으로 구분 |

출처: 김용구, 김희정(2021)의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3].

영성지능의 구성요인으로 초월성, 초자연, 믿음, 실존적 의미, 삶의 의미와 목적, 상호연결성, 내적 자원, 관계성, 내적 능력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 지능 구성요인에 관한 과학적 요인분석은 추후 연구자들이 연구하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에서는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의미를 둔다.

4. 영성의 개념 도출

문헌 고찰을 통한 영성 개념 도출을 위한 영성 개념을 범주화하면 [표 5]와 같다. 영성 개념에서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다. 수직적 차원의 범주는 상위 존재와의 관계이며 형이상학적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수직적 차원의 속성은 주로 초월성, 믿음(신, 초자연), 되어감이 있으며, 수평적 차원의 범주는 사회적, 환경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으며, 실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수평적 차원에서 속성은 삶의 의미와 가치, 상호 관계성(나, 타인, 사회, 국가, 자연)그리고 되어감이 있다. 수직적차원과 수평적 차원에서 공통적인 속성은 되어감이다. 되어감의 의미는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신과 관계에서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노력하여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 되어감(becoming)이 있다. 이러한

영성을 촉진하기 위한 영적 촉진 요소가 바로 내적 성찰과 자기반성 그리고 신, 초월자가 존재한다는 자각이다. 이러한 영적 촉진 요소가 동기유발이 될 때 영성이 개발될 수 있다. 영성이 발휘될 경우 삶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자비, 유교에서 말하는 조상을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삶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 의미있는 삶을 살게 된다.

[표 5] 영성 개념 도출을 위한 범주화

[Table 5] Categorization for Derivation of Spirituality Concept

| 차원 | 범주 | 속성 | 영적 속성 촉진 요소 | 영성의 결과 | 영성 발현 결과 |
|--------|---------------------------------|--|------------------------------------|--|--------------------|
| 수직적 차원 | -상위 존재와 관계 -형이상학적 종교적 의미를 내포 | -초월성 -믿음 (신, 초자연과의 관계) -되어감 | -내적 성찰 -자기 반성 -신, 초월자 존재의 자각 |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깨달음, 자비, 조상 섬김, 효 |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만족과 행복 |
| 수평적 차원 | -사회적, 환경적 관계 -실존적 의미를 내포 |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상호 관계성 (나, 타인, 사회, 국가, 자연과의 관계) -되어감 | | | |

영성의 개념에서 나타난 속성들은 초월성, 의미, 가치, 관계성, 되어감이 있다. 이 속성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영성 개념의 속성

[Table 6] Properties of the Concept of Spirituality

| 학자 | 영성 개념 |
|---------------------|---|
| 초월성 (Transcendence) | 자신을 넘어선 차원(신, 초자연)에 대한 경험과 인식으로 확장된 자아 경계를 의미한다. |
| 의미 (Meaning) | 삶의 존재론적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존재에 목적을 가져다주고 삶의 상황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한다. |
| 가치 (Value) | 소중하게 여기는 신념이나 규범 즉 진리, 미, 생각, 행동 등에 대한 가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흔히 궁극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
| 관계성 (Connecting) | 나와 상대방, 나와 가정, 나와 직장, 나와 사회, 나와 초월자(초자연, 신)등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
| 되어감 (Becoming) | 반성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삶의 펼쳐진 부분으로 누가 그리고 어떻게 많은 것들 사이에서 알아 가는지에 대한 감각을 포함한다. |

결론적으로 영성이란 영적 속성들이 외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성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첫째, 수직적 차원이란 상위 존재, 초월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형이상학적,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성을 각 개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맺는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개인주의적, 내면 중심적, 내세 중심적인 영성 이해를 넘어선다. 둘째, 수평적 차원이란 사회적, 환경적 관계에서 실존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기, 다른 사람, 자연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때의 영성은 ‘초월적 존재에 관한 의식의 확장’이다. 이것은 현세적 삶과 연계된 영성을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수행의 필요성과 그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고, 과거의 지나친 신비주의적 입장이나 합리주의적 시각에서만 영성을 해석하려는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근거가 된다. 즉, 영성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현재의 자기 자신과 환경 너머를 보고 현실을 뛰어넘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을 의미한다[10].

5. 학교 교육에서 영성 교육의 방향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를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다. IQ나 EQ로는 인간의 인지적 대처 능력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영성 지능 혹은 실존지능은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지능이다[12]. Goddard(2000)는 영성을 통합적인 에너지로 보았다. 몸(신체)과 마음(정신)과 영(영혼)의 내적인 조화를 만들어 내는 에너지라고 보았다. 어떤 종교적 의미의 부여나 연결을 시도해서는 안 되고 종교를 초월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영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영성을 종교와 연결하려는 시도나 의도 때문이다. 영성 교육은 종교교육이며 특정 종교와 결부시킬 때 편향적인 내용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다[13][14]. 신자유주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시대 교육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교육은 그동안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15]. 사회는 과학기술 기반 사회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지만 인간의 가치관이나 문화는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다. 급격한 기술변화와 과학기술 발달과는 달리 인간의 가치관의 변화는 상당히 느리게 바뀐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인성교육이다. 지금 학교가 실패하고 있는 원인은 인성교육의 실패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인성교육을 잘 해도 인성이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은 인성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 보다는 영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은 자신의 인성을 외부에서 변화시키지만 영성교육은 자신의 영성을 외부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성교육이 미래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교육의 역할이다. 그러나 영성하면 종교교육과 결부 시키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성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영성의 개념에서 수직적 관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초월자(신, 초자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겸손해진다. 특정 종교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초월자(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등)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이 초월자에 대한 신념으로 자신이 초월자로 생각하는 그 초월자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초월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전쟁들 중 많은

부분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자신이 믿는 종교나 절대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는 절대자나 종교에 대한 존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내가 믿는 종교나 절대자를 신봉한 나머지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하여 경멸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은 영성이 깊은 것이 아니다.

둘째, 영성의 개념에서 제시된 수평적 관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수평적 관계는 나, 타인, 사회, 국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성이 깊다는 의미는 수평적, 수직적 관계의 의미를 충실히 수행할 때 사용해야 옳은 말이다. 수직적 관계만 충족하고 수평적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수평적 관계만 충실하고 수직적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영성이 깊다는 의미는 잘못된 표현이다. 일상적으로 영성이 깊다는 의미를 주로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영성 교육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적 사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편화된 인간성을 가진 존재로 몰아가고가고있다. 그러므로 영성교육은 결국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다[16]. 어떤 종교든지 종교적인 계율대로 사는 것은 신실한 종교인으로 되어감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신실한 종교인인지 아닌지는 신 앞에 단독자로서 있는 자신만이 알 수 있다. 어느 종교든지 종교의 계율은 지켜야 하지만 종교의 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종교가 추구하는 정신이다. 종교의 계율을 지키는 것은 신앙인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충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충족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영성 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다. 지능적인 인간보다 지성적인 인간, 지성적 인간보다 영성적 인간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사람 상당히 지능적이야는 말은 부정적으로 들린다. 그 사람이 상당히 지성적이란 의미는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영성이 빠져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한다. 영성교육이란 수평적 수직적 관계의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세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포스트 휴먼시대 인간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영성 교육은 약간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결론 및 제언

6.1 결론

영성 교육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영성 개념은 추상적이고 어렵고, 모호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에서 영성교육은 인성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은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덕목을 기준으로 실시하지만 영성 교육은 인간의 삶 뿐만이 아니라 초월자(신, 초자연)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부분이 인성교육과의 차이이다. 영성교육은 인성교육을 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실천적 행위로서 어느 시대이든지 한 시대의 도덕을 선도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할 포스트 휴먼사회에서는 새로운 교육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가치도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성교육은 인성교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이 연구의 목적은 영성의 개념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영성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교육에서 영성 교육 방향을 탐색 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은 첫째, 문헌에 나타난 영성 개념을 정리하고 둘째, 영성 개념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영성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헌에 나타난 영성 개념을 종합하면 영성교육이란 수직적 관계는 형이상학적, 초자연적인 존재자와 관계를 잘 하는 것이며, 수평적인 개념에서는 나와 타인, 나와 기계, 나와 자연 등 현실세계에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관계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학교교육에서는 주로 수평적 차원의 교육만 이루어 지고 있다. 영성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수평적 차원은 물론이고 수직적 차원에서도 좋은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 수평적, 수직적 관계의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6.2 제언

영성 교육 개념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영성 개념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영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영성 개념 정립을 통하여 학교 교육에서 영성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영성 프로그램은 주로 종교 단체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종교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영성 교육은 주로 수직적 차원에서 영성교육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영성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기를 기대한다. 올바른 영성 교육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둘째, 영성 개념에 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 즉 수직적 차원에서의 영성만 강조하는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영성 교육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 시켜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올바른 영성 교육은 특정 종교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수직적, 수평적 차원에서 통합될 때 올바른 영성교육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영성 하면 종교 이렇게 연결짓는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은 문헌분석으로 이루어 진 것이 한계이다. 추후 개념분석에 대한 양적 방법으로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상관관계, 회귀분석, LISREL, 판별 분석이나, 질적 분석 방법으로 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개발하는 방법인 현상학적 방법, 문화기술지, 민족과학, 그리고 근거이론 등을 사용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Y. H. Kim, G. J. Choi, S. D. Kim, An analytic study on the trends of spirituality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9), Vol.10, No.2, pp.813-829.
UCI: G704-001281.2009.10.2.031
- [2] I. S. Ko, S. Y. Choi, J. S. Kim,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of Spiritua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7), Vol.47, No.5, pp.242-256.
DOI: <https://doi.org/10.4040/jkan.2017.47.2.242>
- [3] Y. G. Kim, H. J. Kim, Influence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on spiritual intelligence, *Journal of Holistic Education*, (2021), Vol.25, No.3, pp.23-48.
DOI: <https://doi.org/10.35184/kshce.2021.25.3.23>
- [4] H. Gardner, A case against spiritual intellig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000), Vol.10, No.1, pp.27-34.
- [5] J. M. Morse, J. E. Hupcey, C. Mitcham, E. Lenz, Concep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A critical appraisal,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1996), Vol.10, pp.257-281.
- [6] M. L. Lee, Concept Analysis of Spirituality in Cancer Patients - focusing on Christianity, Buddhism, Atheism and

Agnosticism,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03), Vol.15, No.4, pp.551-562.
UCI: G704-000678.2003.15.4.013

- [7] E. O. Waker, K. C. Avant,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Connecticut : Appleton & Lange, (1995)
- [8] M. S. Lee, S. W. Lee, G. J. Kim, M. K. Kim, J. H. Kim, K. H. Lee, I. O. Lee, J. S. Lee, J. H. Hong, A Review Study on the Strategies for Concept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6), Vol.36, No.4, pp.493-502.
UCI: G704-000229.2006.36.4.025.
- [9] S. Y. Min, Concept analysis of the spirituality, *Health & Nursing*, (2001), Vol.13, No.2, pp.59-67.
- [10] C. K. Kim, S. Y. Lee, Y. J. Lee, J. J. Chong, W. Y. Choi, *Counseling Dictionary*, Hakjisa, (2016)
- [11] D. Zohar, I. Marshall, *SQ: Connecting with our spiritual intelligence*, New York, NY: Bloomsbury, (2000)
- [12] H. S. Jang, H. W. Joo, The Korean Version of the Spiritual Intelligence Self-Report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1), Vol.10, No.2, pp.181-197.
DOI: <http://dx.doi.org/10.22839/adp.2021.10.2.181>
- [13] N. C. Gooddard, A Response to Dawson's Critical Analysis Of Spirituality as "Integrative Energ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0), Vol.31, No.4, pp.968-979.
- [14] B. J. Oh, K. A. Kang, Concept analysis of the spirituality, *Health & Nursing*, (2000), Vol.30, No.5, pp.1145-1155.
- [15] S. I. Oh, Education Paradigms and Spiritual Education: Practical Tasks of Engaged Spirituality in the Neo-liberal Regime, *Theology and Philosophy*, (2017), No.31, pp.157-186.
- [16] D. I. Kim, Christian Spirituality Education for the Renewal of Humani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2017), Vol.32, pp.1-21.